2024년 세계 노동시장 전망

구자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년 한 해, 세계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겪었다. 코로나19 위기 때의 재정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높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는 원인이 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많은 국가가 임금상승 압력을 받게 되었다. 본 호에서는 특히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이 높은 물가상승률과 노동력 감소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할지 살펴본다.

Randall W. Eberts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팬데믹 때의 재정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미국구조계획을 지적했다. 연준의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인플레이션율은 3.4%로 나타났고(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이다),[1]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미국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미국의 노동공급은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45년이 되어서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공급 문제에 대해 미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이유는 연간 약 100만 명 수준의 이민자 유입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약 1.7%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직전 조사에 비해 상승한

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4), “Consumer Price Index News Release”, https://www.bls.gov/ (2024.1.31).

것으로, 미국의 경기가 천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실업률은 전년대비 0.4%p 오른 4.1%로 예상되는데 이는 급여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율은 연준 목표인 2%에 가까운 2.5%인 것으로 예상되는바, 종합하면 미국의 2024년 경기는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Randall W. Eberts는 불확실성 또한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엇보다 2024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낮은 지지율(39%)[2]은 다음 선거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어 차기 집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특히 현재 이민과 관련하여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 또한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어, 이는 미국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까지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 많은 에너지 자원을 의존하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과 같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독일의 2023년 GDP 성장률은 -0.4%, 인플레이션율은 5.9%로,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2022년 등록 구인 건은 2010년의 3배가 넘어섰으며 노동력 부족의 원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추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입된 이민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대부분은 언어 및 육아 문제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이민 유입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Matthias Knuth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전망은 밝지 않다. 독일의 GDP 성장률은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하락하여 유럽중앙은행 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공급의 경우 문제가 심각한데,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이민 유입과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이민 유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독일 3개 주에서 시행될 선거에서 이민에 부정적인 극우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력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Gallup, “Biden Ends 2023 with 39% Job Approval”, 2023.12.22.

마지막으로 박상준 교수는 2023년 일본 노동시장의 화두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임금인상이었다. 특히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2023년 3%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노동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왔고 이로 인해 일본 중소기업의 68%가 노동력 부족을 겪었다. 이에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 확보와 더불어 여성 및 노인 고용 확대로 대응했다. 특히 정부는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전문 기술직 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2024년 일본 경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약 1.2%로 예상된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약 2.4%로 점차 목표치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최근 하락한 유가 때문이다.[3] 노동공급 부족 문제는 일본 또한 이민 비자 증가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호에서 다루고 있는 세 국가의 2024년 전망을 종합하면, 2024년 세계 경제는 점차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며 물가 또한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민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독일과 일본 모두 계속해서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은 우리나라의 올해 전망과 흡사하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2.2%로 2023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년대비 약 1%p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4]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여성 및 고령층 고용이 2024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5] 이는 지난해 일본의 모습과 비슷하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 다룬 세 국가의 대응 및 전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KLI

3) Bank of Japan(2024),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https://www.boj.or.jp/ (2024.1.31).
4) 한국개발연구원(2023), 「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https://www.kdi.re.kr/ (2024.1.31).
5)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2023), 「2023년 하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2024년 노동시장 전망」,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110호(2023-02), p.11.